Ⅰ. 서 론

보험산업은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전가받아 형성된 기금을 통해 약정한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과 형성된 기금으로 대출, 주식투자 등 금융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산업의 성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자 역할 측면에서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두 자리 수 이상의 고성장을 하여 왔다. 이러한 높은 성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의 출현과 경제주체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수요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성장은 1998년 구제금융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노력과 판매전략에 의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Ⅰ-1> 보험산업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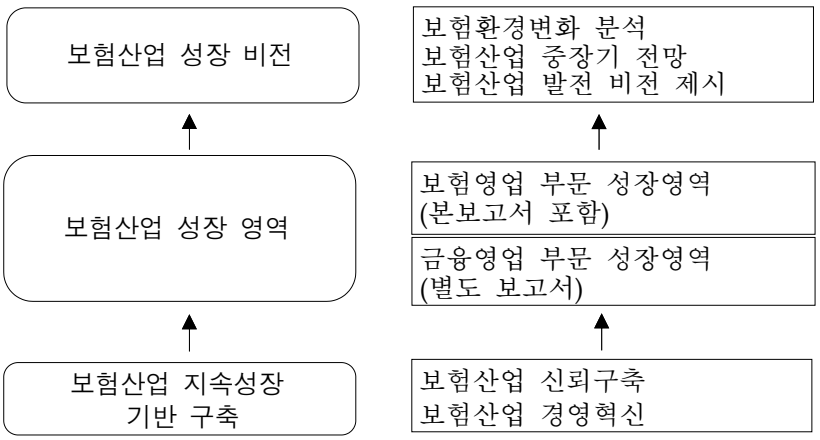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 계	
	수입보험료	성장률	원수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1980	6,040	55.2	3,880	39.3	9,920	47.7
1985	69,120	62.8	10,170	21.3	79,290	51.5
1990	160,440	18.3	35,900	28.7	196,340	19.9
1995	352,880	17.1	109,243	24.9	462,123	18.7
2000	466,705	5.8	164,784	8.6	631,489	6.4
2005	614,722	5.7	257,241	9.3	871,963	6.7
2006	664,549	8.1	295,861	15.0	960,410	10.1
2007	750,956	13.0	339,818	14.9	1,090,774	13.6
2008	735,613	-2.0	374,954	10.3	1,110,567	1.8

주 : 1980~2000년까지의 성장률은 연평균성장률이며, 2006~2008년의 성장률은 연간성장률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최근의 국내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적인 수요하락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수요로 한정적인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국내 보험산업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시장개방과 금융겸업화로 대내외 무한 경쟁환경에 처하여 있을 뿐 만 아니라 타업종간/다른권역간의 경쟁에도 노출되어 있어 8, 90년대와 같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은 보험료수입의 성장과 더불어 자산운용 등의 금융영업부분의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금융겸업화 환경속에서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산업의 금융영업서비스 기능은 지속적인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겸업화 촉진 정책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에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리스크의 노출은 크게 확대되었고 손실규모도 증가하였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보험회사의 성장은 보험영업측면과 금융영업측면 모두에서 실패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 Ⅰ-1> 연구의 체계도



주 : 별도보고서는『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임.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은 본연의 리스크관리자 역할인 보험영업측면과 금융영업측면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사업영역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사업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21세기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고 있는 지를 모색하여 보험료의 중장기 전망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설정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영역을 보험영업 부문과 금융영업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아울러 보험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보험 및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21세기의 영업환경에 부합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했다.